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AI 반도체주 하락에 업종 순환매..다우 '최고가'

- 미국 증시 주요지수 혼조 마감: 다우 +1.73%, 나스닥 -0.09%
-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합의, 유가 나흘만에 하락
- 브로드컴 중심 반도체주 약세..금융헬스케어 등 강세

Summary

미국증시 주요지수 혼조 마감

6월 4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 마감.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반도체 업종이 전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하락했지만 금융과 헬스케어 등 여타 업종군으로 순환매성 매기가 유입된 가운데 다우지수는 상승하고 나스닥지수는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임.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이행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해 국제금리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도 중소형주, 경기민감주 중심 반등의 요인이 됨. 물론 기술주 투매에 장 중 낙폭을 1%대까지 확대했던 나스닥 지수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장 중 반등하는 등 기존 주도 업종에 대한 대기 매수세가 적지 않음도 확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73% 상승한 51,561.93에 마감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P500 지수는 0.41% 상승한 7,584.31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0.09% 하락한 26,830.96에 마감. 중소형주 중심 러셀2000 지수는 1.45% 상승.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 지수 VIX는 4.11% 하락한 15.40에 마감.

(다우 +1.73%, 나스닥 -0.09%, S&P500 +0.41%, 러셀2000 +1.45%)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합의: 유가/금리 하락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 이행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이날 국제유가와 금리, 달러의 하락으로 이어짐.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앞선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이 소식은 이란-미국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짐. 물론 이스라엘과 직접 교전 중인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이 굴욕적이고 수치스럽다며 휴전 합의를 거부했고 이는 유가, 금리 등의 낙폭 축소 요인이 됨.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전해지자 낙폭 추가 축소는 제한됨. 마감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헤즈볼라의 입장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다. 검토되고 있다. 꽤 긍정적이다' 라고 언급해 양측의 신호가 엇갈릴지언정 적어도 한 쪽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이 긍정적으로 읽힘.

반도체주 쉬었지만 순환매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브로드컴이 급락했고 이는 곧 AI 반도체주 전반의 약세로 이어졌지만 S&P500 구성 종목 중 약 360여개 종목이 상승하는 등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군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견조했음. 특히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등 전통 업종으로 매기가 유입되는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 다우지수 랠리를 견인. 이는 기존 주도주군이 잠시 쉬더라도 시장의 동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내는 방증으로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함. 물론, 이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하던 나스닥 지수가 저점에서 낙폭을 축소해 장 중 반등하기도 한 것은 기존 주도주군에 대한 대기 매수세 역시 적지 않음을 확인시켜 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4개월래 최고

미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로 끝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 계절 조정 기준 22만 5천건으로 전주에 비해 1만 3천건 증가. 이는 지난 2월 첫째 주 이후 약 4개월만의 최고치이며 시장 예상치도 웃도는 것.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건수는 21만 4,750건으로 집계돼 전주 대비 6,500건 역시 증가. 다만 연속 실업보험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8천건 감소. 주간 수치가 시장 예상보다 늘어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체 해고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은 견조하다는 평가. 전일 미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5월 고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채용도 해고도 많지 않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이제 시장의 관심은 현지시각 6월 5일(금요일) 발표될 5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로 쏠림. 현재 전문가들은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8만 5천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4.3%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사모시장 유동성 우려 확산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건전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전일 스위스 대체투자 운용사 파트너스 그룹이 유럽 내 일부 사모펀드의 환매를 제한한다고 밝혔고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클리프위터도 전날 투자자 서한을 통해 주력 사모대출 펀드인 클리프위터 기업대출펀드의 2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7%로 집계됐으며 2분기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한다고 밝혔던 바. 이에 이어 월가 대표 투자운용사 블랙스톤 역시 자사의 사모대출 펀드 환매 제한 조치에 나섬. 블랙스톤은 이날 투자자 서한을 통해 자사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 BCRED와 관련, 2분기 중 펀드 지분의 약 10%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접수됐으며 환매 요청이 이같이 폭증함에 따라 규정을 근거로 환매 상한을 5%로 제한했다고 밝힘. BCRED의 환매 요청 규모는 1분기에도 사상 최고 수준인 7.9%까지 증가했던 바 있으나 당시 블랙스톤은 분기별 환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임직원 자금을 투입해 환매 요청을 모두 수용했던 바 있음. 그 결과 1분기 순자금 유출을 기록. 다만 블랙스톤 주가는 환매 제한 조치 발표 이후 이날 오히려 반등함. 환매 제한을 위기 신호가 아닌 상품 구조상의 정상적 안전장치로 읽어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된 영향. 다만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핼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CIO)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수면 아래에서 많은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 수 년 만에 처음으로 지속적인 부도와 손실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고 경계하는 등 신용 시장 전반의 불안은 아직 진행형인 상황.

특징종목

AI 반도체주 약세: 브로드컴 급락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12.59%)은 급락. 전 거래일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이 22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최근 높아진 시장 예상치 222억 7천만 달러를 하회. 브로드컴의 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를 밑돈건 2024년 12월 이후 처음. 한편 AI 인프라 사업의 핵심인 인프라 매출도 71억 8천만 달러에 그쳐 시장 예상 73억 2천만 달러를 하회. 다만 일부 기준으로는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 그럼에도 주가 낙폭이 컸던건 마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때문이라는 분석. 브로드컴은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을 2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성장할 것으로 전망. AI 반도체 매출은 160억 달러로 전망해 전체 매출 전망치의 약 54%까지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다만 3분기 비GAAP 매출총이익률을 74% 수준으로 전망해 2분기 77.1%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힘. 회사는 반도체 사업의 구조전 마진 악화가 아닌 반도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 간 매출 구성 변화에 따른 마진 감소라고 설명했지만 AI 반도체 매출 확대가 전체 이익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투자자들은 다소 간의 우려를 드러냄. 나아가 2027 회계연도 AI 반도체 전체 매출 전망에 대한 추가 상향이 없었던 점도 높아진 주가 수준에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뱅크오브아메리카와 미즈호는 목표주가를 530달러로 상향했고 오픈하이머와 JP모건 등도 목표가를 각각 535달러와 580달러로 상향 조정함. 다만 맥쿼리는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으며 UBS는 '매수' 의견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기존 490달러에서 485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

브로드컴 영향으로 AI 반도체 및 서버 관련 종목 전반이 약세를 보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74%)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소식 이후 낙폭 확대. 이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1.10%), AMD(-3.56%), 인텔(-0.83%), 에이알 엠 홀딩스(-4.47%), 샌디스크(-3.92%), 웨스턴 디지털(-3.31%), 램 리서치(-2.12%), 쉘컴(-2.62%) 등. 주요 반도체주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15% 하락했고, VanEck 반도체ETF(SMH)(-1.63%), Roundhill 메모리ETF(DRAM)(-5.75%), iShares 반도체ETF(SOXX)(-2.10%) 등 대표 반도체 관련 ETF도 동반 약세.

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줄였으며 TSMC(+1.88%), 엔비디아(+1.94%) 등은 상승 반전에 성공.

반도체 이외 AI 데이터센터 관련주도 하락세로 IREN(-5.53%), 어플라이드 디지털(-1.25%), 코어위브(-2.61%) 등이 약세 마감.

AI 관련 광학 및 네트워킹 관련주도 장 초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한 시에나(-13.66%) 영향에 약세를 보였지만 루멘텀 홀딩스(+0.75%)과 코히어런트(+1.07%) 등은 반등 마감.

금융/헬스케어/소비재 등 전통업종군으로 순환매기 확산

최근 매수세가 집중됐던 AI반도체가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여타 업종, 종목군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전형적 순환매 장세가 진행됨. 특히 전황 악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상승과 그로 인한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이날 유가 하락과 금리, 달러 하락으로 인한 다소 완화돼 중소형주군으로도 고르게 매수세가 유입됨.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가 특징적이었던 가운데 일라이 릴리(+4.31%), 유나이티드헬스(+5.16%), 애브비(+3.60%), 머크(+4.85%), CVS(+3.78%), 휴마나(+6.80%), 다나허(+4.81%), 카디널 헬스(+3.01%), 얼라인 테크놀로지(+4.07%), 레스메드(+4.21%), 인튜이티브 서지컬(+2.83%), 메드트로닉(+5.11%), 스타아이커(+2.10%) 등 제약, 보험, 의료기기 등 업종 내 전반적 종목군이 강세.

특히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5.11%)은 전일 실적 발표 이후 BTIG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경쟁사 대비 저평가 돼 있으며 향후 매출 성장 여력이 크다고 분석하는 등 긍정적 평가에 상승 탄력을 더함.

유나이티드헬스(+5.16%) 역시뱅크오브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 의료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가 2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

금융주도 일제히 상승. JP모건 체이스(+3.34%),뱅크오브아메리카(+3.38%), 웰스파고(+3.74%), 씨티그룹(+4.02%), 비자(+2.49%), 마스터 카드(+2.17%), PNC 파이낸셜 서비스(+4.04%), US뱅크프(+4.37%), 키코프(+3.78%), 트루리스트 파이낸셜(+3.71%), 골드만삭스(+4.96%), 모건스탠리(+3.87%) 등 대형 은행, 투자은행, 지역은행, 카드사까지 전반에 걸쳐 강세.

스위스 파트너스에 이어 클리프워터, 그리고 블랙스톤까지 대체 투자 운용사들의 사모 대출 펀드에 대한 환매 제한 소식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이는 위기 신호가 아닌 상품 구조상의 안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블랙스톤(+7.50%)이 오히려 강력하게 반등했고 블랙록(+3.20%), KKR(+5.45%), 아레스 매니지먼트(+6.01%), 블루 아울 캐피털(+5.16%) 등 관련주 모두 상승.

이외 유가와 금리 하락은 노르웨이저인 크루즈 라인 홀딩스(+5.40%), 카니발(+2.50%),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2.40%) 등의 크루즈 관련주 강세로 이어짐. 노르웨이저인 크루즈 라인 홀딩스의 경우 내부자 대규모 주식 매입 소식이 더해져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

빅테크 주가는 혼조

빅테크 주가는 전일의 약세에서 벗어나 대부분 종목이 반등에 나서는 등 혼조. 테슬라가 1%대 하락 마감했지만 아마존 닷컴(+1.60%)은 유럽에서의 차세대 로봇 및 창고 확장 계획 등을 바탕으로 반등했고 엔비디아(+1.96%) 역시 코닝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등을 기반으로 강세. 구글 알파벳(+3.68%)은 텍사스에 새로운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허브를 발표.

최근 발표한 80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국 폭증하는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악재보다 호재에 가깝다는 분석 속에 5거래일 만에 반등.

양자 컴퓨팅: 퀀티뉴엄 상장

양자컴퓨터 기업 최초의 '데카콘(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사)'로 주목받았던 퀀티뉴엄(+0.63%)이 미국 증시 나스닥 시장에 상장. 퀀티뉴엄은 이번 기업공개에서 애초 목표였던 53~55달러보다 높은 주당 60달러로 공모가를 확정하고 2,800만 주를 매각해 16억 8천만 달러를 조달. 상장 첫 날 공모가 60달러 대비 13.33% 높은 68달러에 첫 거래를 시작했고 장 중 71.35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해 공모가 언저리에서 마감. 이에 따라 퀀티뉴엄의 시가총액은 157억 달러를 기록.

아이온큐(-3.77%), 리게티 컴퓨팅(+0.27%), 퀀텀 컴퓨팅(-0.09%), 디 웨이브 퀀텀(+0.33%), 아킵 퀀텀(-2.87%) 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대체로 약세 마감.

이외 특징주

할인 소매업체 파이브 빌로우(-13.78%)는 전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 전망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차익 매물에 약세.

반려동물용품 유통업체 펫코(-6.07%)는 현재 진행 분기 조정 EBITDA 전망이 시장 기대를 하회하자 약세.

사이버 보안 업체 클라우드스트라이크(-3.81%)도 약세 마감. 전거래일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과 함께 발표한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과 EPS 가이드언스가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영향.

타미 힐피거와 캘빈 클라인의 모회사 필립스 반 휴센(-20.24%)은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연간 실적 가이드언스를 추가 사항 없이 기존 전망 그대로 유지하자 실망감에 급락.

스포츠웨어 업체 룰루레몬(-0.88%)이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하락.

소프트웨어 기업 도큐사인(-2.79%)은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를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하락.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인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2.48%)는 전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지만 조정 총 마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급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이행 합의, 국제유가 나흘만에 하락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이행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미국의 중재로 합의된 이번 휴전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에서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를 전제로 함.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을 미국과의 종전 합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이란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며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 중 4% 이상 하락해 배럴당 92달러선을 소폭 하회하기도. 다만 이스라엘과 직접 교전 중인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 나임 카셈이 휴전안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자 유가는 낙폭을 줄여 3.1% 하락한 배럴당 93.04달러에 마감.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2.8% 하락한 95.03달러에 마감.

국제 금 가격은 유가가 하락하며 급격한 인플레이 상승과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사그라들자 상승.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0.8% 가량 상승한 트로이온스 당 4,505달러 선을 기록했으며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보험권에 머물러 온스당 73달러대를 기록.

미 국채금리 단기물 중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하락.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이행 합의 소식에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자 국채 금리 인상 베팅이 다소 약화되며 금리가 하락.

2년물 국채 금리가 3.9bp 하락한 4.0431%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2bp 하락한 4.4729%를 기록함. 30년물은 1.7bp 하락해 4.9746%를 기록. 10년물과 2년물 사이 금리 차는 42.98bp로 전일 대비 1.76bp 확대됨.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7%대로 전장 대비 다소 높여 반영.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39% 수준,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2%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2% 미만으로 반영.

달러 나흘만에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가와 함께 4거래일만에 하락.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이행 합의 소식에 약세 압력을 받음. 다만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낙폭은 축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 중 99.18선까지 하락했지만 낙폭을 줄여 0.08% 하락한 99.445를 기록. 달러-엔 환율은 다시 160엔대를 돌파하

는 약세를 보였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2% 상승. 파운드-달러 환율은 0.03% 상승.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29.70원 대비 2.30원 상승한 1,532.00원에 마감. 장 중 상단을 10원 가까이 확대하며 고점을 1,540.30원대에 형성,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장 중 고점 1,561.00원 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65원)를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85원 상승한 1,532.9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